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1호 가입자 탄생

김인수 기자 입력 2024. 4. 30. 10:33

65세~79세 고령 농업인 대상...최대 10년간 직불금 지급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는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제사업’ 1호 가입자가 탄생했다고 30일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신청지사 전경. 국제신문 DB

진주시에 거주하는 허모 씨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1호 가입자 신청서와 함께 약정서를 체결 후 오는 5월부터 농지이양 은퇴직불금을 지급받을 예정이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사업은 고령 농업인(65~79세)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 또는 청년농업인 등에 매도 이양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원하는 제도이다.

특히 농어촌공사는 고령 농업인에게 이양받은 농지는 청년 농업인에 우선 제공해 농업 생산성 향상과 스마트팜 등 미래 농업 조성에 활용된다.

허모 씨는 “첫 번째 직불금 수혜 대상자가 돼 영광이다”며 “고령 농업인이 은퇴 후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데 좋은 제도를 통해 노후생활을 계획하는데 있어 적지 않은 보탬이 될 것 같아 농어촌공사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은수 진주산청 지사장은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도입을 통해 농업·농촌의 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영농정착과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 보장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농지지원을 확대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